



## 로드-킬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자!

최 흥 철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로드-킬(Road-kill)’이라는 단어가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접하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보면 이 말이 사회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로드-킬의 주요 발생 원인은 각종 도로개발 등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도로횡단을 막아주는 펜스 등 적절한 시설물 부족과 운전자의 과속 등도 원인이 된다.

로드-킬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중·대형 포유동물(예:고라니 등)은 고속도로 침입 시 대형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 야생동물학회에서는 로드-킬로 인하여 매년 200명 이상의 운전자가 사망하며 수천명 이상이 동물과 자동차와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사망과 부상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이 2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도에 ‘전국 생태통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야생동물의 습성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마련하여 신

규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등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의 활동영역권, 지역특성 및 도로단절면 등을 감안해 일정 도로구간을 선정하여 조사대상, 조사횟수 및 조사방법 등을 통일시켜 로드-킬 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주로 나타나는 도로구간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야생동물 출현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산악지대나 구릉지대로서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많은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구간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도로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접근이 쉬운 지역에 서식지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육교형이나 지하통로형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운전 중 도로에 있는 야생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도로관리기관이나 관할 시·군에 연락을 취하여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치우게 함으로써, 로드-킬로 인한 추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㉔

[본 기고1, 2는 환경부 홈페이지 기획특집란에서 발췌함.]